

언론동향(11. 19.)

《언론보도 목차》

1. (파이낸셜뉴스) 파주 DMZ 평화의 길 탐방 20일재개...하루 40명 2
2. (노컷뉴스) ASF에 막혔던 'DMZ 평화의길'...2년 만에 운영 재개 4
3. (인천일보) “Let's DMZ 축제 킬러 콘텐츠 발굴해야” 5
4. (서울경제) 강원도, '2021 DMZ P.O.P 콘서트' 오는 20일 비대면 개최 6

파주 DMZ 평화의길 탐방 20일재개...하루40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9 04:14 수정 2021.11.19 04:14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1년 남짓 중단됐던 '파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을 오는 20일부터 다시 개방한다.

파주 DMZ 평화의길은 4.27 판문점선언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따라 조성 및 개방됐다. 이번에 재개방하는 파주 구간은 임진각에서 출발해 도라전망대, 9.19 남북군사합의에 철거된 GP를 거쳐 다시 임진각으로 복귀하는 코스로 약 3시간가량 소요된다.

코스 마지막에 방문하는 파주 철거 감시초소에선 개성공단, 북한주민 실제 거주 마을 등 손에 잡힐 듯한 북한 모습을 볼 수 있어 한반도 분단과 평화가 공존하는 색다른 경험을 안겨준다.

파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차량 및 개인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을 확충했고, 사전점검도 마쳤다. 또한 관광객은 투어 전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파주 DMZ 평화의길 개방은 한반도 평화를 알리고 키워나가는 평화관광이라 말할 수 있다"며 "전쟁 상흔과 남북분단 상징이던 DMZ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상징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 DMZ 평화의길은 '두루누비' 누리집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관광 대상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주 5일간(월-목 휴무), 하루 두 번(10시, 14시) 개방되며 1회에 20명씩 하루 4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12월12일까지 운영된다.

ASF에 막혔던 'DMZ 평화의 길'...2년 만에 운영 재개

핵심요약

평화의 길 고성 구간 A, B코스 재개방
2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7일간 운영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A코스 구간을 견고 있는 방문객들. 전영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2년 넘게 중단됐던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이 오는 20일부터 다시 개방된다.

'DMZ 평화의 길'은 남북분단 이후 DMZ를 최초로 국민에게 개방해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상징에서 세계생태평화의 상징지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2019년 4월
개방해 같은해 10월 중단 전까지 총 1만 2천여 명이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을 찾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재개방하는 고성 구간은 총 2개 코스다.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금강동문, 금강산전
망대를 거쳐 다시 통일전망대로 복귀하는 A코스과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전망대를 거쳐 다
시 통일전망대로 복귀하는 B코스다.

다음 달 12일까지 총 17일간 운영하는 평화의 길은 하루 2회 운영(매주 월·목·휴무)하며 참
가신청은 온라인 'DMZ 평화의길'사이트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A,B코스 1회차당 20명으로 축소하며 백신접종 관련 앱이나 증빙서류를 지참·인증해야 입
장이 가능하다.

고성군은 운영 재개에 앞서 ASF 방역 조치를 완료했으며, 재개 이후에도 ASF 방역 상황과
멧돼지 서식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행 중 말일
체크,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참가자 안전여행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할 예
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DMZ 평화의 길 재개방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DMZ에 담긴 평화·생
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 전까지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igamja@cbs.co.kr

“렛츠 DMZ 축제 킬러 콘텐츠 발굴해야”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지난3년간지속적 성장했으나
중심축 부재로 협업구조에 한계
전문사무국 중심 실무체제 필요

“렛츠 디엠지(Let's DMZ)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고 도정 성과로 연결시켜야 한다.”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8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경기도 대표축제인 렛츠 디엠지 평화예술제가 코로나19 등 대외적인 악재를 이겨내고 명실상부한 축제상품으로 기능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축제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강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민선 8기 정부에서 지속할만한 가치를 보이지 못했다”, “대표축제라는 관점에서 실패했다”고 언급하는 바람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지난 3년간 축제를 돌이키며 “디엠지 축제는 지속해서 성장하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진제공=경기문화재단

고 있고 특히 올해는 경기도 각 시·군에서 찾아가는 렛츠 디엠지 행사가 열려 확장성이 돋보였다”며 “평화예술제 포럼은 평화 의제를 중심으로 국내 학술을 집대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렛츠 디엠지에서 코어 역할을 하는 킬러 콘텐츠가 과연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불분명한 면이 있다”며 행감 발언의 배경을 설

명했다.

강 대표이사는 “최소 5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큰 축제라는 시각에서 수행 주체의 집중성이 떨어진다”며 “(중심축 부재로) 협업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내부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렛츠 디엠지가 단순한 행사들의 집합이 아닌 시너지를 창출하는 브랜드로 기능하려면 수행기관에 기계적으로 행사를 분담하지 말고 전문적인 사무국 중심의 실무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도의회와 집행부, 관련 기관이 축제 사무국을 중심으로 응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대표이사는 “렛츠 디엠지가 도를 상징하는 대표축제로, 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공존을 꿈꾸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역량의 결집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 마련, 지역주민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기재위는 당일 행감을 통해 특위 구성 의지를 보였다”며 “콘텐츠 한계를 넘어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콘텐츠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다혜 기자 pdyes@incheonilbo.com

강원도, '2021 DMZ P.O.P 콘서트' 오는 20일 비대면 개최

입력 2021-11-18 13:49:36 수정 2021.11.18 13:49:36 김동호 기자



분단의 아픔과 화해 및 공존, 평화와 희망을 담은 특집 음악 방송 프로그램 '2021 DMZ P.O.P 콘서트(부제 강원, 겨울 가을 여름 봄 그리고 평화)'가 오는 20일 토요일 오후 10시 MBC 뮤직(MBC M)과 27일 오후 10시 아리랑TV를 통해 국내외 방영된다.

강원도가 주최 및 주관하는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대면 공연 개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강원도 내 평화지역을 배경으로 K-POP, 국악, 합창, 댄스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종합 예술 공연을 통해 평화와 화합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본 공연의 MC는 정지영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출연진으로는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자 김봉미)와 인기 아이돌의 공연이 펼쳐지며 국내 최정상 댄싱 크루 저스트절크 등 총 113명이 출연진으로 참여한다.

강원도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평화지역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고자 도내 대표 관광지 20여곳을 사전 촬영하여 무대배경에 활용했으며,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과 포레스텔라가 안보 관광지와 인제 자작나무숲을 배경으로 사전 녹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공연에서 보기 어려운 휴전선 철조망으로 제작한 ‘통일의 피아노’와 ‘이산가족의 애환이 담긴 손 편지’를 무대에 활용하여 평화와 화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특색 있는 음악 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전했다.

강원도 박용식 평화지역본부장은 “본 공연을 통해 평화지역의 다양한 매력과 DMZ 및 평화의 가치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맞아 내년에는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 DMZ P.O.P 콘서트의 P.O.P(PIECE OF PEACE)는 강원도 평화지역 문화 프로젝트의 통합 브랜드로 평화의 조각을 의미한다.